

로 마 서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국제적이며 복음적인 기독교 기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19)는 지상사명을 주셨다.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가시켜
이 지상사명을 성취하는 일을 돕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네비게이토 출판사는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본 출판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돕는
서적과 자료들을 출판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견고한
현신된 제자로 성장하고,
나아가 성숙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일꾼이 되도록 돕고 있다.

Translated by permission

Title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LIFE CHANGE SERIES - ROMANS

by NavPress, a ministry of The Navigators.

©1987 by The Navigators

Korean Copyright ©2007 by Korea NavPress

로 마 서

A NavPress Bible study on the book of

R O M A N S

차 례

이 교재의 사용법	8
배경 - 바울과 로마	15
로마제국 지도	15
바울 사역의 연표(年表)	16
1과 - 개관	24
2과 - 서론(1:1-17)	35
3과 - 하나님의 진노(1:18-32)	46
4과 - 하나님의 기준(2:1-29)	53
5과 -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3:1-31)	64
6과 - 아브라함의 의(4:1-25)	78
7과 - 의의 열매(5:1-21)	88
8과 - 그리스도와의 연합(6:1-14)	101
9과 - 은혜 아래 있음(6:15-7:6)	110
10과 - 율법과 죄(7:7-25)	117

11과 - 성령 안의 삶(8:1-17)	123
12과 - 확신(8:17-39)	131
13과 - 이스라엘(9:1-29)	141
14과 - 불신(9:30-10:21)	154
15과 - 하나님의 계획(11:1-36)	163
16과 - 산제사(12:1-21)	169
17과 - 빛(13:1-14)	179
18과 - 연약한 자와 강한 자(14:1-15:13) ...	191
19과 - 개인적 메시지(15:14-16:27)	199
20과 - 복습	207
참고 도서	216

감사의 말

이 성경공부 시리즈는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성경공부팀과 출판부 편집진이 함께 수고하여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미리 사용해 보고 출판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사용법

목 적

이 성경공부 시리즈는 성경의 각 책별로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책마다 지침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1.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줌으로써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줌.
2. 다른 안내서가 없이도 성경의 각 책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줌.
3. 모든 역사적, 지리적 배경, 단어의 정의 및 필요한 해설을 실어서 다른 참고 서적이 필요 없이 성경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줌.
4. 성경 한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줌.
5.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줌.

한 과를 혼자서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과를 공부한다는 가정 아래 모든 지침이 주어져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반 과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정해 놓고 하면 됩니다.

응통성

이 성경공부 시리즈는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공부의 분량과 그 깊이를 조절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따라 주어진 문제 이외에 임의로 선택해서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난외에 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택 적용. 거의 모든 적용 문제가 선택 사항입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문제들을 하기 바랍니다.

목상과 토의. 성경공부 초보자는 물론 성경공부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윤리적인 문제나 기타 성경적 원리들을 다룹니다. 대개는 참조 구절들이 소개되어 있어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구절들이 반드시 분명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추가 연구.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1) 그 주제를 더욱 분명히 밝혀 주는 참조 구절들과, 2) 본문을 깊이 파고들 수 있게 해주는 질문들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 본문의 요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2과에서 19과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그 과에서 공부한 본문의 개요를 작성하라는 지침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룹으로 함께 공부하는 경우에는, 각 과마다 선택 질문들 중에서 어떤 문제들을 준비해 올 것인지, 또 다음번에는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것인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대개는 그룹 인도자가 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적용 질문은 각자 필요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 감에 따라, 그에 맞추어 질문의 수준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 성경공부 교재는 적절한 참조

구절과 적용을 위한 도전, 여러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당신의 영적 성장에 풍부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관과 분석

공부는 책에 대한 개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해석의 열쇠는 그 책 또는 본문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는 열쇠는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봄으로써 공부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그리고 하나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책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2과부터는 본문을 따라가며 자세하게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문단 하나하나가 책 전체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그 문단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면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책의 개요를 살펴보면 공부하면 이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 과에서는 책 전체를 복습하게 되는데, 한 부분 한 부분 자세하게 공부한 이후 그 책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시야가 공부를 시작할 때와 비교할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 책의 주된 요지들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이 공부를 통해 당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유형

주어진 지침이 없이 혼자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관찰을 하십시오—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음에는 해석을 하십시오—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십시오—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와 “왜”를 묻는 문제들 가운데는 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거나 기도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명쾌한 정답이 없이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토의 거리를 마련해 주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식만을 습득하는 공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주님, 여기에서 제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제게 알려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것을 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되며,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절 묵상은 선택 사항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내적인 확신으로 심화시켜서,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 5분 정도 그 말씀을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각 단어, 구, 문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그 외 시간에도 간간이 그 구절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시편 119:97).

참고 도서

본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다 신고자 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거나 나름대로 깊이 공부해 보기를 원할 경우에는 각 책에 대한

주석이나,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성서 지도 등 참고 도서(216-218쪽 참조)를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성 경

이 교재에서 사용한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한 경우에는 번역본을 명기했습니다.

암송과 묵상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편 119:11). 자신에게 도전이나 격려가 되는 구절을 기록해 두고 한 주간 또는 그 이상으로 자주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동기와 변화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깊이 묵상한 것들은 쉽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은 카드에 적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그 구절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소리 내어 암송해 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시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잠깐씩이라도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이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룹 성경공부를 위해

활발하고 유익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규모

는 4-10명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룹의 규모가 이와 다르다 할 지라도 그에 맞추어 본 교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교재는 가족, 장년, 청년, 사업가 등등 여러 계층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건,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건 다 이 교재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거나 나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남겨 두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진도는 한 주에 한 과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토의를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더 세분하여 토의해도 좋습니다. 성경공부 준비나 토의 시간에 제약이 있을 경우, 어떤 문제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자들의 배경과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것들에 대해 토의를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도록 하십시오. 토의를 할 때에 참석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각 과마다 끝부분에는 “소그룹 모임을 위한 지침”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은 토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그 과를 공부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 제안을 해줍니다. 그룹 인도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한 지침”이라는 난을 읽어 보아서 그 과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 올 것인지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는 모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와야 합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답을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과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려면 한 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은 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참석자들의 형편상 이런 준비가 없이 그룹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한 과를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번은 함께

모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은 개인적인
목상과 기도가 없이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룹으로 함께 성경공부를 하면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공부에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
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 모종의 행동을 취
하기로 적용했을 경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경청하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각자 자신
의 적용 내용을 실천하는 일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의 성장이 자신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알게 되며, 그룹을 영적 원리들
을 실천하는 마당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몇
분 동안은 지난 과에서 적용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또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새
로 적용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각 사람이 적용한 내용과 기도 부탁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면, 그 주
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더 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며, 다음
에 다시 모였을 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 제목과 토의 내용을 적는 노트를 한 권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토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진행되고 있
는 토의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며, 토의되고 있
는 주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적는
데만 매달려 토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모임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서기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기의 일은 기록을 잘 해서 그것을 복사한 뒤, 다음 번 모임 때 모두
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는 기록 내용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
도록 칠판이나 큰 종이 위에 기록하거나 미리 준비된 궤도를 이용하
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 경

바울과 로마

로마제국 지도



윌리엄 틴데일은 자신의 영어 신약성경 1534년 판 서문에서 로마서를 일컬어,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동시에, 구약성경의 입문서가 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¹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구약성경 전체를 인용하여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진실로 읽기가 쉽지가 않고, 공부하기도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공부할수록 쉬워지고, 씹을수록 단 맛이 나며, 깊이 파고들수록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극히 값진 영적 보화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역의 연표(年表)

예수님의 공생애	AD 28-30년
바울의 회심 (행 9:1-19)	33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방문 (갈 1:18)	35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여행 (갈 1:21, 행 9:30)	35-46년
이방인 선교를 해명키 위해 예루살렘 방문 (갈 2:1-10)	46년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와 갈라디아 여행 (행 13-14장)	47-48년
갈라디아서	48년?
예루살렘 회의 (행 15장)	49년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여행 (행 16-17장)	49-50년
데살로니가전후서	50년
고린도 선교 (행 18:1-18)	50-52년
예루살렘 방문	52년
에베소 선교 (행 19장)	52-55년
고린도전후서	55-56년
마게도냐, 달마디아, 아가야 여행 (행 20장)	55-57년
로마서	57년 초
예루살렘 방문 (행 21:1-23:22)	57년 5월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힘 (행 23:23-26:32)	57-59년
로마에서 셋집에 구금됨 (행 27:1-28:31)	59-62년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60?-62년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
로마에서 순교	65년?

※ 모든 연대는 추정이며, Bruce의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에 근거한 것임.

서쪽을 바라보다

AD 57년,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된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아가야)에서 전도하며 보냈는데, 이제는 자기가 거기서 할 일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이들이 교회를 돌보고 있었기에, 바울은 서쪽에 있는 스페인(서바나)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제국의 가장 서쪽 끝에 있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로마서 15:23-24).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던 오랜 숙원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지만(사도행전 22:27-28), 그 유명한 제국의 수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물며 이미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갖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를 바랐고, 그곳을 스페인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명밖에는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서쪽으로 여행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드린 헌금을 모아 두고 있어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헌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로마서 15:25-26).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의 편지를 보내 그의 방문을 준비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AD 57년 이른 봄 그리스에서 썼는데(사도행전 20:2-3),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서술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려면,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들었을 내용에 대해 최소한 얼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AD 1-10년경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다소는 작긴 했어도 수리아에서 소아시아로 통하는 무역로상에 위치해 번창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소는 그 당시 철학과 학문을 주도하던 학파들로 이름이 나 있었고, 따라서 바울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로마제국의 다른 대부분의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소에도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회당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종종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만큼이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²

그러나 빌립보서 3:5에서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부모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며 그를 엄격하게 유대식으로 양육해, 가능한 한 주위 이교도들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³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빌립보서 3:5). 사울이 자신에 대해 다소 성 시민이었을 뿐 아니라(사도행전 21:39),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사도행전 22:27-28) 것으로 보아, 그들은 그 지역에서 부와 명망을 구비한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⁴

사울은 유대 율법을 공부하러 예루살렘에 유학해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문하에 들어갔습니다(사도행전 22:3, 갈라디아서 1:14).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따로 떼어 놓은 사람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사람이 약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은 모든 율법은 일점일획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더 엄격한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 분명

합니다.⁵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며 공의로 통치하실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자 많은 바리새인들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와 주(보통 하나님을 일컫는 말임)라고 선포하며 따르게 되자,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사도행전 7:58-8:3, 갈라디아서 1:13). 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 다메섹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던 중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그의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사도행전 9:1-9), 그는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의 삶은 바리새적인 율법 준수로부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순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울은 그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바울

바울의 회심은 폐쇄적인 유대주의를 떠나 이방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갈라디아서 1:21). 아마도 거기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파하였던 것 같습

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불러왔는데, 이 무렵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⁶

얼마 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그들은 약 2년 동안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일부 교사들이 들어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가르침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두 사도는 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 앞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살며 우상 숭배를 피하기만 하면 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사도행전 15:1-35).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으로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유대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이후 다시 선교 활동에 힘썼습니다. 실라와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은 4년 동안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그리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짧게 방문한 후에,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 에베소, 마게도냐를 거쳐 마침내 고린도까지 갔습니다(사도행전 15:40-20:3). 고린도에서 또는 인근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가이오라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로마서 16:23, 고린도전서 1:14), 바울은 아마 로마에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로마 도착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한 방법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신자들이 준 구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그를 대적하던 몇 유대인이 로마 당국을 선동하여 그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 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심문받게 해달라며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사도행전 21:17-25:12).

로마로 가는 여행은 폭풍우로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거의 일 년이나 걸렸습니다(사도행전 27:1-28:16).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는 그 편지를 보낸 지 약 3년 뒤에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사도행전 28:30),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오히려 그가 세운 여러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빌립보서 1:12-18, 2:25, 4:18). 그 후 바울은 아마도 이 첫 번째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 스페인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다시 체포되어 재판관을 받고 로마에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

로마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⁷ 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을 수도 있고(사도행전 2:5,10,11,41), 아니면 그 후 나중에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상, 또는 종교적인 목적의 순례나 단순히 여행을 위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와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여러 도시들을 오갔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제국의 동쪽 지방에서 복음을 듣고는, 그 소식을 로마로 가서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은 분명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사도행전 18:2-3).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추방할

때 그들도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크레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요 때문이었습니다.⁹

그 추방은 AD 49년에 있었는데, 몇 년 후에는 그리스도인이든 비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로마서 16:3). AD 57년 무렵에는 로마에 상당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길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로마서 2:17, 11:11-21).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많이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 누가 소수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쓸 당시에는,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가 오늘날처럼 제국 전역에서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신앙관에 익숙하였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구약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세부 사항들을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통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접근하였고,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던 과거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많은 유대 분파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각 분파는 구약성경과 유대 전통에 대하여 저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제시할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러한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단 하나의 정확한 이해라고 하였습니다(갈라디아서 1:8 참조). 이와 더불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다른 은사와 관행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간의 하나 됨과 관용을 강조했습니다(로마서 12:1-15:13).

하나님의 의(義)

로마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의(로마서 1:16-17)의 계시를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죄, 구원, 은혜, 율법, 믿음, 행위, 의(義), 의롭다 하심[칭의(稱義)], 성화(聖化), 구속(救贖), 사망, 부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유대인의 위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생활 방식 등과 같은 아주 크고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영혼의 일용할 양식”¹⁰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즐기도록 하십시오!

1.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p. 9.
2. A. T. Robertson, “Paul, the Apostle,”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ume 4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6), p. 2276.
3. F. F. Bruce,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pp. 41-43.
4. Bruce, *Paul*, pp. 32-40.
5. Bruce, *Paul*, pp. 50-51.
6. Bruce, *Paul*, pp. 127-133.
7. Bruce, *Paul*, pp. 379-382.
8. *The NIV Study Bible*, edited by Kenneth Barker (Grand Rapids, MI: Zondervan Corporation, 1985), p. 1681.
9. Suetonius, *Life of Claudius* 25. 4. See Bruce, *Paul*, pp. 379-382.
10. Martin Luther, *Commentary on Romans*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1982), p. xiii.

개 관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책 전체를 살펴 보면 세부 내용을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전에 로마서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전체를 개관해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래에 로마서 전체를 개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문제 1-8을 한 번 죽 훑어보십시오.

1. 먼저, 자신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편지든 받으면 죽 읽어 보듯이, 이 편지를 죽 읽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너무 길어서 한꺼번에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1:1-17, 3:21-26, 5:1-5, 8:1-4, 9:1-5, 11:13-15, 12:1-2, 15:14-33만 읽어 보아도 좋습니다.
2. 읽으면서, 바울의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나 주제들을 적어 보십시오. 이런 단어나 주제들은 대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바울이 전달하려고 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궁금한 사항들도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롭다

하심”이나 “의(義)”와 같은 단어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나 주제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의문 사항은 문제 3의 빈칸에 적기 바랍니다.

3. 로마서를 읽거나 15-23쪽의 배경 부분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거나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내용들이 궁금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 빈칸에 질문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공부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체계적으로 적어 보냈습니다. 개요를 작성해 보면 그의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각각의 단락에 대해 짚막하게 요약해 해보십시오. (편지의 일부분만 선택하여 읽고 있다면, 그 부분들만 요약해 보십시오.)

다음에 제시한 단락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나누고 싶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1:1-17
1:18-32
2:1-16
2:17-3:8
3:9-20
3:21-31
4:1-25
5:1-11
5:12-21
6:1-14
6:15-23
7:1-6
7:7-25
8:1-17
8:18-39
9:1-33
10:1-21
11:1-36
12:1-21
13:1-14
14:1-15:13
15:14-33
16:1-27

5. 1:1-15은 1:16-17 내용으로 이끄는 서론 격에 해당하며,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이 1:16-17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이처럼 선명하게 그 주제를 진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보통 편지를 쓰듯 하기보다는 체계가 잡힌 논문을 쓰듯 하였습니다.

1:16-17을 다시 읽고, 바울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말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한 문장 또는 몇 단어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6. 다음은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따라 로마서 전체를 좀 더 큰 부분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1:1-17

1:18-3:20

3:21-4:25 (또는 3:21-5:21)

5:1-8:39 (또는 6:1-8:39)

9:1-11:36

12:1-15:13

15:14-16:27

□ 추가 연구

문제 4-6의 답을 주석 성경이나 성경핸드북에 나오는 개요와 비교해 보십시오.

□ 추가 연구

성경사전이나 성경백과사전을 찾아, 바울이나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7.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성격, 목표 등등)이라고 생각됩니까? 필요하다면 1:1-17, 9:1-5, 10:1, 11:13-14, 15:14-16:27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8. 15-23쪽의 배경 부분에서(아직 읽지 않았으면 읽어 보십시오), 기억해 두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적으십시오.

9. 성경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공부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이 개관 부분에서 공부한 내용을 죽 훑어보면서 다음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가?

이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나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나 떠오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대답이 떠오른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아래 빈칸에 적으십시오.

소그룹 모임을 위한 지침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한 지침” 난은 토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룹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 과의 주된 목표는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전반적으로 알고, 또한 함께 로마서를 공부할 사람들을 아는 데 있습니다. 8-14쪽의 “이 교재의 사용법” 부분, 15-23쪽의 역사적 배경 부분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면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세부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전체를 함께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룹 멤버들에게 개관 부분을 읽기 전에, 먼저 로마서 전체를 읽어 보도록 권하되, 전체를 다 읽는 것을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멤버들 중에 성경공부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성경공부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이들은 한 번에 어려운 책 한 권 전부를 읽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한 번에 책 전체를 읽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 어떤 식으로든 간단한 예배로 모임을 시작하면 그날의 염려나 관심사를 뒤로 미루어 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잡아 함께 기도함으로써 모임을 시작하기를 좋아하는 그룹도 있고, 찬송을 몇 곡 부르고 나서 시작하기를 좋아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아니면, 찬송을 한 곡 부르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간단히 하고 나서 곧바로 시작하고, 성경공부를 마친 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좋아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그룹에 맞게 하되, 그룹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 처음으로 모이는 시간은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서로 간에 더욱 친밀해지고, 공통된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도록 해주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각자가 연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기도, 찬송, 나눔, 전도, 또는 이외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공통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각자가 그룹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특히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각자가 희망 사항과 기대하는 바를 나눌 때 한 사람이 기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목표들을 되돌아보면서 각자의 희망과 기대가 채워졌는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로마서 전체를 좀 더 천천히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기 원할 수도 있으므로, 서로 이야기를 통해 모종의 일치점을 보게 되면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하도록 이 교재의 앞부분의 적당한 빈칸에 각자의 목표를 적어 두게 하십시오.

1과의 토의를 시작할 때 약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목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임을 한 번 잡아서 성경공부도 소개하고 “이 교재의 사용법”(8-14쪽)도 이야기하고, 각자의 목표를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관. 함께 토의할 내용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이 교재의 사용법. 교재의 사용법 중에서 그룹 멤버들이 꼭 알아 두는 게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짚어 준 다음, 질문이 있으면 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교재의 여백에 있는 선택 질문 등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상과 토의, 선택 적용, 추가 연구를 위한 제안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선택 적용” 중 한 문제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과 토의” 문제 중에서 한두 개를 선택하여 그룹 토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해 두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의 노트를 사용하여 기록하도록 제안하십시오. 별도의 노트가 있으면, 토의 내용,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적용 계획 등을 기록해 둘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 과마다 관찰-해석-적용의 패턴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번호가 매겨진 문제 중 많은 것이 관찰과 기본적인 해석을 위한 것이며, 더 깊은 공부를 위한 토대를 놓아 줍니다. 여백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룹 토의에서는 번호가 매겨진 문제들을 빨리 지나가고(어떤 문제는 그냥 건너뛸 수도 있음), 그룹의 관심을 끄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토의 할 수도 있습니다.

216-218쪽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참고 도서를 소개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그룹 멤버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성경 암송 및 묵상과 관련하여 왜, 어떻게 하는지 토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묵상은 일부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2. 핵심 단어와 사상.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핵심 단어와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3. 개요. 문제 4에 대한 각자의 답을 멤버들끼리, 그리고 다른 개요들(주석 성경이나 성경사전, 또는 이 교재의 33-34쪽에 나오는 개요 등)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각 사람에게 “1:18-32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답들을 문제 6과 비교하십시오. 서로 다른 개요들의 유익점을 토의하십시오. 주석이나 성경사전 등을 보면 각기 개요 내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공부한 후에 로마서 전체를 복습하면서 다시 다른 개요들을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주제. 로마서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바울은 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15-23쪽의 배경 설명이 이에 도움이 됩니다.) 1:16-17은 바울의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5. 바울. 바울을 우리와 같은 감정과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되면, 바울의 말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 주는가? 15-23쪽의 배경 설명은 무엇을 더 말해 주는가?

6. 로마의 그리스도인. 배경 설명과 편지를 통해 바울의 독자들에게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또한, 그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7. 질문. 로마서에 대하여 그룹 멤버들의 질문이 있으면 모두 기록하십시오. 그 질문들에 대하여 지금 즉시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적절한 때에 그 질문들에 대해 토의하면 될 것입니다.

8. 적용. 그룹 멤버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의 교훈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한 부분을 택하여,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 시간은 토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과나 다음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과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41쪽의 ‘도움말 - 적용’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2과를 공부하면서 공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이 있기 하루 이틀 전에 가서야 다음 과를 준비하다가 지난 과에서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발견하고는 적용 내용을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공부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시간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권면하십시오. 다음 모임 때까지 암송하기로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암송을 시작하도록 권면하십시오.

마침.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타내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룹 멤버 모두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개요. 로마서의 개요는 여러 가지로 작성할 수 있는데, 그중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¹

1. 서론(1:1-15)
2. 주제: 하나님께서 난 의(義)(1:16-17)
3. 모든 인간의 불의(1:18-3:20)
 - 1) 이방인(1:18-32)
 - 2) 유대인(2:1-3:8)
 - 3) 요약: 모든 사람(3:9-20)
4. 의(義)의 전가(轉嫁): 칭의(3:21-5:21)
5. 의(義)의 분여(分與): 성화(6:1-8:39)
6. 하나님의 의(義)의 변호: 이스라엘의 거부의 문제(9:1-11:36)
7. 의(義)의 실천(12:1-15:13)
8. 결론(15:14-33)
9. 추천과 인사(16:1-27)

1. 표제(발신인과 수취인, 주소, 인사)(1:1-7)
2. 바울과 로마교회(1:8-15)
3. 서신의 주제(1:16-17)
4.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 계시(1:18-4:25)
5.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약속된 삶(5:1-8:39)
6.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9:1-11:36)
7.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12:1-15:13)
8. 맺음말(15:14-16:27)

1. The first is from *The NIV Study Bible*, pp. 1704-1705; the second is from C. E. B. Cranfield, *Romans: A Shorter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pp. xv-xvii.